ISSN 2466-1279

언론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04
2016 + April
Vol. 190

따스해진 날씨만큼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봄입니다.
항상 우리의 곁에서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예쁜 꽃잎에 햇살을 담아
봄날의 포근함을
전해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해에 태어난 이진아 씨는 12년 전 언론중재위원회에 입사했습니다. 조정·중재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입장을 사전에 청취하는 등 중재부의 심리 진행을 보좌하는 조사관인 이진아씨는 위원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아래와 같이 포부를 밝혔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찾는 분들이 언제나 만족하며 웃으실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진아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서울제5중재부 조사관)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35주년

1987년 정기간행물법이 제정된 이후 1995년 직권중재결정권이 도입되는 등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고,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도입되고 조정 이외의 중재신청도 가능해졌으며 인터넷신문이 조정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언론사닷컴 등을 조정 · 중재 대상 매체에 포함하여 피해구제범위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따라 끝없이 진화하는 언론중재위원회는 2016년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을 도입하고, 댓글과 펌글 및 유사뉴스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조정 및 중재자로 자리매김해 온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과 언론 곁에서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언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 · 중재신청 절차와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 · 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 · 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ac.or.kr
언론중재Eye-Net people.pac.or.kr
블 로 그 pacblog.kr
페이스북 facebook.com/pacnews
트 위 터 twitter.com/pac_news

Contents

2016 April Vol.190

04 **인터뷰**
조용구 / 사법연수원장

06 **미디어트렌드**
로봇저널리즘: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기사

07 **교육후기**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을 마치며

08 **문화토픽**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09 **세상읽기**
리더십 최고의 덕목은?

10 **언중노트**
스포트라이트를 잡아라

11 **언론법 이모저모**
'카스'의 추억과 인격권

12 **여행수첩**
이탈리아 중부 소도시 여행

14 **위원회 NEWS**

15 **조정중재 사례 / 『언론사람』100자평**

발 행 인 박용상
편 집 인 권우동
발 행 일 2016년 4월 1일
등 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 행 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EL 02-397-3082~4
편집 · 디자인 한라애드플러스(주) TEL 031-247-5141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사법연수원은 다양한 교육기능이 중심이 되는 법교육의 메카로서 새롭게 거듭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래 법조계에는 큰 지형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사법연수원은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오랜 기간 축적한 교육 노하우를 외부에 전파하여, 다양한 교육 기능이 중심이 되는 법 교육 메카로서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노력의 중심에 있는 조용구 사법연수원장을 만났다.

1956년생
서울대 법과대 졸업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 11기 수료
울산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
(현)사법연수원 원장(2015년 2월~)
(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2015년 2월~)

Q. 사법연수원의 구체적인 활동과 업무를 소개해주십시오.

A. 사법연수원은 1971년 개원한 이래 45년의 긴 세월 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법조인 양성기관이자 유일한 법관연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부장검사 내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현직 법관(검찰) 교수가 연수생 20명의 지도교수가 되어 2년의 연수생활을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사법연수생은 예비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올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체득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는 10명의 법관 교수가 제주대를 제외한 전국 24개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여 실무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선발 인원의 축소에 따라 사법연수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법관을 포함한 일반 법관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효적인 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기존의 연수생 수습 외에 다양한 교육기능이 중심이 되는 법 교육의 메카로서 새롭게 거듭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Q.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전문성과 함께 도덕성,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균형적 시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법연수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A. 사법연수원생들을 대상으로 법조윤리 수업을 편성하여, 모범이 되는 전·현직 법조인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듣거나 연수원생들끼리 이에 관한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지속적 복지시설 봉사연수'를 도입한 바 2015년에 46명의 사법연수원생이 고양시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들의 멘토로서 활동하였습니다.

한편, 사법연수원도 법조인의 시각과 국민의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며, 2015년 하반기부터 법관연수에서 '인문학 테마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분야 법관연수로 남녀 성별의 시각 차이, 소수자 보호 등에 관한 주제로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고, 2016년도에는 인문교양학을 통합적으로 성찰하여 바람직한 법관의 시각과 자세를 되새길 수 있는 '법학 콘체르토'를 새롭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Q. 인천지법 판사, 울산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0년 넘게 법원에 재임하시며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판결에 힘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으로 재임하시던 과정에서 특히 유념하셨던 사항은 무엇인지요.

A. 사건 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패소한 당사자라도 절차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만, 성과가 미흡하여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 조용구 사법연수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2014년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변호사가 담당 법관을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등 10개 항목으로 평가(100점 만점)한 결과, 5명의 판사와 함께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 2014년 우수법관 평가에서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3.2점이었고, '우수법관' 6명의 평균점수는 96.3점이었다.

Q.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공정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국민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유권자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민의를 나라의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어로 '목소리'는 'voix'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투표권'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못마땅한 정치인들의 행태를 바로잡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사람 됨됨이와 공약을 잘 살펴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고, 나아가 당선자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그 결과를 다음 선거에 반영하는 등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1중재부장(1998년~1999년) 및 경기중재부장(2002년~2005년)으로 재임하셨습니다. 재임 기간에 기억에 남으신 일이나 보람 있었던 점은 무엇인지요.

A. 2003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모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일본 대사와의 회담 보도에 오보가 있었다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신청했던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심리과정에서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회담 녹음테이프를 중재부장인 저 혼자 들어보고 오보임을 확인한 후 정정보도를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해당 신문 1면에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오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기조라, 대통령이나 정부부처의 조정신청이 많았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Q. 복잡한 갈등 상황이나 중요한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마음을 정화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A. 특별히 마음을 정화하는 노하우를 말씀드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 원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책과 음악 감상을 통해 머리를 가볍게 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언론중재위원회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조인과 전임 중재부장으로서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에 대해 한 말씀 부탁합니다.

A.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특히 인터넷 포털을 매개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역시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포털사업자가 보도 매체의 기사를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하여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저의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은,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됨으로써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선례적 판결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국민의 인격권 등을 보호할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하여 발전된 형태의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언론중재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검색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와 구제를 위하여 삭제청구권이나 접근차단권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된 개정안이 성문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청년실업이나 세계적인 경제여건 등으로 인해 사회 분위기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언론사람〉 독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한 말씀 부탁합니다.

A. 섣부른 위로나 조언이 오히려 상처가 될 만큼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미국 3대 방송사 NBC에서 가장 잘나가는 코미디언이었던 코난 오브라이언이 하루아침에 다른 동료에게 그 자리를 뺏기고 폐인과 같은 생활을 하던 중, SNS에서 기타 하나 들고 한 스탠드 업 공연이 인기를 끌게 되고 이후 NBC "코난 쇼"를 통해 화려하게 재기하게 됩니다. 코난 오브라이언이 2011년 다트머스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실망스러운 일은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잘 다루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백 번의 성공보다 한 번의 처절한 실패가 진짜 당신을 만나게 해 줄 겁니다."

· 진행 | 이진숙(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최은진(홍보팀 차장보)

이준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로봇저널리즘: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기사

Robot Journalism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영화나 소설 속에서가 아닌 현실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세돌 9단과의 다섯 번의 대국은 2002년 월드컵 경기만큼이나 뜨거웠고, 마치 이 대국이 인류의 미래가 걸린 마지막 성전인 것인 양 느껴지기까지 했다. 치열했던 다섯 번의 대국이 끝난 지금, 사람들은 저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기대감에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에 관해 이야기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은 이것이 많은 부분에서 인간을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영화 속 인공지능처럼 인간을 지배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자리가 잠식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있다. 내가 구매한 도서를 기반으로 새로운 책을 추천해 주거나, 메일함에 쌓인 스팸메일을 걸러내는 기술 뒤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아직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

작년에 국내에 로봇저널리즘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 저널리즘 분야에도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hci+d lab에서 개발한 로봇저널리즘 알고리즘은 2015년도 한국 프로야구의 모든 경기를 자동으로 요약, 정리해서 뉴스 기사를 제작하였고, 2016년 2월부터는 매일 증시 시황기사를 국내 일간지에 제공하고 있다.

알고리즘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로봇저널리즘 알고리즘은 야구나 증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원시데이터(raw data)를 수집한 후 이를 알고리즘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다. 그다음, 기사에 포함할 중요한 사건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컴퓨터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기사 작성에 걸리는 시간도 매우 빠르고 정확하다. LA Times에서는 지진 관련 기사를 로봇이 작성하는데, 지진이 발생한 후 0.3초 이내에 관련 기사가 송고된다. 재난 상황과 같이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증시 관련 기사와 같이 데이터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도 도움이 된다. 소수점 아래까지 숫자를 표기해야 하는 증시 기사에서 숫자가 잘못 기재되는 일은 로봇저널리즘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로봇저널리즘은 개인화된 기사의 생성에도 활용될 수 있다. 사람과 달리 알고리즘은 개개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기사를 생성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내가 응원을 하는 야구팀을 중심으로 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워치나 컴퓨터 모니터 등, 다양한 디바이스의 크기에 맞게 기사의 양을 조절하거나 한 번에 여러 언어의 기사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서울대학교의 증시 시황 기사 알고리즘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기사를 동시에 만들어 낸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로봇저널리즘이 기자라는 직업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겠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된다. 로봇저널리즘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다. 컴퓨터의 빠르고 정확한 연산 능력을 활용해 대용량의 정보에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분석하여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군다나 로봇저널리즘의 알고리즘은 아직 사람과 같은 통찰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기술이 더욱 발전하더라도 이는 요원한 일이다.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우리의 사고영역을 대체할 수는 없다. 다만 자료의 분류, 예측 등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만을 모방할 뿐이다.

따라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진실을 전달하는 저널리즘의 가치는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조성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뜬구름 잡던 예비법조인에게 구체적 지평을 열어준 시간들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을 마치며

> 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절차로서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콘텐츠팀 박은영 강사님의 말씀처럼 당사자의 '감정의 해소'가 있었습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방송 관련 일을 하다가 로스쿨에 입학했을 정도로 저에게 방송과 언론은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입학 후 막연히 방송에 관련된 일을 하는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꿈만 가진 채 학과공부 하기 바쁘다는 핑계로 구체적으로 언론과 법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 될 수 있는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방송전문 변호사'가 되겠다는 야심찬 꿈은 점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언론중재위원회의 예비법조인 실무수습 과정은 제 목표를 구체화할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빈틈없이 짜인 강의일정과 조정참관과정 그리고 모의토론회를 포함한 모든 커리큘럼은 구체적 갈등국면에서 언론에 의해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구제를 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매우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소위 '언론법'이 어떻게 사건에 적용되고 그 과정에서 법조인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 즉,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언론사건에 적용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에 의한 판결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갈등 해결방식을 배울 적에는 매우 신선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년간 법대를 다니면서 주로 배운 것은 '이기는 전략'이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변호사인가는 그러한 이기는 논리를 얼마나 잘 학습하여 현실에 적용하는가로 가려졌고 판결로 승소와 패소가 갈릴 뿐 그 과정에서 대화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공격과 방어방법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당사자부터 원고와 피고가 아닌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 불립니다. 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절차로서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콘텐츠팀 박은영 강사님의 말씀처럼 당사자의 '감정의 해소'가 있었습니다. 딱딱한 법정에서 법 논리의 다툼이 아닌 양 당사자가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소통할 장을 합법적으로 마련해 줌으로써 Zero-Sum이 아닌 Win-Win의 방식으로 갈등해결을 유도하는 것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원만한 갈등해결을 위해 조사관과 법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치열한 법 논리 보다 신뢰관계형성과 협상의 기술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연수프로그램 마지막 날 진행된 모의토론회에서는 가상의 사례해결을 통해 그간 배운 실무실습의 내용을 확인, 점검, 발휘하는 자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중재위원님들께서 두 팀으로 나눠 이루어진 조정·토론절차를 참관하고 그에 대해 논평을 해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연수생이 많아 발언기회가 많지 못했던 점은 아쉬웠지만 구체적 사건을 통해 실무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마치 변호사가 된 듯하여 예비법조인으로서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중재위원님들의 날카로운 논평 덕분에 종강의 기쁨과 어우러져 설렘 위주의 기억으로만 남을 뻔한 마지막 행사에 적절한 긴장감을 불어 넣을 수 있어서 끝까지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언론중재절차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연수생들과의 우정도 가슴 속에 새기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해주시는 언론중재위원회 직원분들과 특별히 이번 연수과정 내내 어떠한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교육본부 교육운영팀 김윤정 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수연 오페라평론가 / (사)대한민국오페라단연합회 홍보이사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부녀의 이야기

—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G. 베르디는 우리에게 오페라 작곡가로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다. 젊은 시절 병으로 어린 딸과 갓난아기인 아들, 아름다운 부인을 2년 동안 모두 잃는 비극을 겪은 그는 내면의 고통을 쉼 없는 창작활동과 빼어난 예술작품을 남기는 것으로 극복했다.

이후 다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일생을 해로한 그였지만 자식을 남기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작곡가 베르디의 자손으로 기록된 인물은 없다. 베르디의 딸 비르지니아는 생후 17개월에 사망했는데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 죽은 아들 이치리오보다 그의 상심이 더욱 컸으리라 짐작된다. 두 돌이 다 돼가던 첫 자식과는 잊지 못할 추억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인지 베르디는 유독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베르디의 작품은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존재감이 약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부각한 오페라가 많은 편인데 그보다 숫자는 적지만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로 강한 인상을 남긴 작품이 몇 편 있다.

잔 다르크의 이야기를 다룬 오페라 '조반나 다르코'에서 아버지와 딸의 반목 관계는 작품의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고 '라 트라비아타' 역시 친아버지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주인공 비올레타가 연인의 아버지에게 부성애를 갈구하는 부분에서 아버지와 딸에 대한 베르디의 남다른 시선을 느낄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작품은 1853년에 발표된 오페라 '리골레토'다.

주인공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제목인 '리골레토'는 궁중 어릿광대와 그 딸에 관한 이야기로 리골레토는 당시 가장 천시받는 직업인 어릿광대일 뿐 아니라 등이 굽은 척추장애인이다. 이런 리골레토의 천사처럼 아름답고 순결한 외동딸 질다는 집에만 갇혀 사는 처지다. 자신을 끔찍이 사랑해주지만,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아버지가 그녀의 바깥출입을 엄격히 금했기 때문인데 거기에는 질다는 모르는 사정이 숨어있다.

리골레토가 모시는 주군 만토바 공작은 천하에 다시없을 바람둥이 호색한으로 멋진 외모와 절대적인 권력을 이용해 세상 모든 여자를 가리지 않고 탐해왔다. 신하의 부인까지도 거침없이 농락하는 그는 비난을 받는다 해도 죄의식이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도덕성이 없는 인물이다. 이런 공작의 캐릭터는 아리아 '이 여자나 저 여자나'에 잘 드러나 있다. 흔히 만토바 공작의 노래로는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인 '여자의 마음'만을 기억하기 쉽지만, 오페라의 막이 오르자마자 기세 좋게 시작되는 이 곡 역시 그의 기질을 잘 드러낸 명곡이다.

자신은 비록 멸시받는 어릿광대일지언정 소중한 딸만큼은 고이고이 길러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리골레토의 마음이었을 테지만 딸은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가난한 학생으로 신분을 속이고 접근한 공작과 기어코 사랑에 빠지고 만다.

공작의 가신들에게 납치돼 궁으로 끌려온 질다는 결국 공작에게 능욕을 당하고 잠옷 차림으로 그의 방을 도망쳐 나온다. 그 순간 어릿광대 복장을 한 채 딸을 찾아 궁 안을 헤매던 리골레토와 맞닥뜨리게 되고 부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의 서로를 마주한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더라도 가족에게만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만난 두 사람의 애끓는 이중창은 15분에 가깝도록 펼쳐지고 이 부분이 바로 2막의 하이라이트이자 작품의 숨겨진 백미다.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정작 본질은 감춰왔던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가족을 진실로 위하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아버지가 그러하듯, 순진한 딸에게 몹쓸 짓을 한 공작에게 리골레토는 복수를 시도한다. 반면 질다는 자신을 가차 없이 버리고 새로운 여자에게 눈을 돌린 공작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 의지할 데라고는 오직 단둘뿐인 아버지와 딸의 마음은 아직도 이렇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공작 대신 죽음을 맞는 질다를 부둥켜안고 리골레토는 죽으면 안 된다며, 네가 떠나면 나는 혼자라고 흐느낀다. 막이 내리면서 들리는 한 맺힌 리골레토의 절규는 한꺼번에 떠나버린 가족들을 향한 베르디 자신의 외침 같아 들을 때마다 가슴에 사무친다.

김명호 국민일보 수석논설위원

리더십 최고의 덕목은?

데블스 애드버킷Devil's Advocate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악마의 대변인'쯤으로 번역할 수 있는 데 가톨릭 성인(聖人) 추대 심사에서 찬성 쪽인 '신의 대변인(God's Advocate)'에 맞서 불가 이유를 주장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분야를 나눈 악마의 대변인들이 후보의 약점과 개선돼야 할 점을 반대편 시각에서 가혹할 정도로 공격하고 토론을 합니다. 청문회이자 검증 과정인 것이지요. 천주교에서 1500년대 후반에 도입, 400여 년 동안 시행했다가 1983년 교황 바오로 2세가 공식적으로 폐기했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들도 TV 토론을 이런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악마의 대변인들이 공약의 허점이나 정치인으로서의 약점 등 껄끄러운 질문으로 몰아세우고, 후보를 화나게끔 만드는 악의적인 질문도 해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지요.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역을 앞에 앉혀 놓고 실제 정상회담에서 오갈 내용을 토론하며 치밀하게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이 방식을 원용한 가상 연습이지요.

2012년부터 시즌 3까지 만들어진 미국드라마 뉴스룸Newsroom은 국내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9·11테러, 미국 대선, 오사마 빈 라덴 사살 등을 다루는 앵커와 기자, 프로듀서 등 영향력 있는 케이블TV의 메인뉴스팀 이야기입니다. 미 해병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동료 구출 작전을 하면서 사린 가스를 사용(중대한 전쟁범죄임)했다는 제보를 받고 기자들이 11개월 동안 비밀 취재를 합니다. 이 사실이 맞다고 판단한 기자들은 인터뷰 등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레드팀Red Team이 나옵니다. 군에서 워게임이나 실전 연습을 할 때 적군 역할을 레드팀이라 합니다. 기사를 내보내기 직전 최종 검증단계로써, 취재 내용을 전혀 모르는 다른 기자들로 레드팀을 구성, 기사의 허점을 파고드는 질문을 하고 올바른 사실관계인지 따집니다. 취재 기자들은 이를 설명하고 방어합니다. 레드팀은 뭔가 허술한 구석이 있다고 주장하며 기사를 내보지 말고 좀 더 확인해보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적은 묻히고 대단한 특종으로 포장돼 기사는 방영됩니다. 결국, 그것은 엉터리 제보와 일부 제보자의 의도적인 거짓말, 특종에 눈이 먼 프로듀서의 인터뷰 조작 등이 얽힌 오보로 판명됐습니다. 메인뉴스의 신뢰도는 엉망이 됐고, 회사는 문 닫을 정도의 타격을 입었지요. 취재팀과 뉴스룸 리더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을 확증 편향적 사고로 무시한 결과입니다.

데블스 애드버킷이나 레드팀은 리더의 잘못된 판단이나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있을지도 모를 조직의 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고, 건강한 견제의 기능을 할 수도 있으며, 오류의 함정이나 사고를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더가 이를 수용하거나, 최소한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참고하겠다는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겠지요. 현상 유지 또는 자리 보존만을 위한다거나, 심지어 자신의 잘못과 오류가 드러날까 봐 레드팀의 기능 자체를 원하지 않는 조직의 리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건강할 수는 없겠죠.

1986년 1월 28일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발사 73초 만에 폭발,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가 TV중계로 지켜본 끔찍한 사고였지요. 기계 부품 이음매에서 기체가 새지 않도록 하는 고무패킹 오링O-ring이 얼음이 얼 정도의 추운 날씨에 뻣뻣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폭발 원인이었습니다. 담당 기술자들은 추위가 가신 뒤 발사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항공우주국(NASA) 지휘부는 이를 무시해 결국 최악의 사고를 낸 것입니다.

조직이나 회사, 국가가 데블스 애드버킷, 레드팀 또는 비슷한 기능을 운용하지 않으면 편향적 사고가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취약점을 알 수 있으며, 위기관리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는 레드팀의 운용은 리더십이 갖춰야 할 최우선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불통이 문제되는 요즘의 우리 정치·사회 이곳저곳에서 말이죠.

강향원 변호사/서울제1중재부 조사관

스포트라이트를 잡아라!

제 88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보스턴글로브지의 탐사보도팀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들은 가톨릭 교구 사제들의 성추행 사건을 취재하면서, 사실 확인을 위해 끊임없이 피해자와 가해자, 변호사들을 찾아다닌다. 범행 사실이 없는 사제가 명단에 포함되어 보도된다면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탐사보도 기자들이 송고 순간까지 확인과 검증에 매달리는 이유다.

우리사회의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탐사보도는 뉴스의 심층성이 가장 극대화된 형식이다. 속보성의 강점을 인터넷 언론들이 선점하면서 전통 언론이 우위를 지킬 수 있는 영역 또한 탐사보도가 아닌가 한다. 특히 방송은 영상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한다. 이에 재연과 설명적인 이야기 전개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타이즈Dramatize탐사보도가 눈에 띄곤 한다. 시청자들은 재구성된 사건관계를 따라가며 보도의 프레임에 맞춰 사실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언론이 약자를 대변한다는 사명감에 피해자의 시선에서 스토리텔링을 구성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다. 개별사건을 재구성할 때 제보자나 피해자의 진술이 주효한 것은 사실이다. 언론은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들리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제보자의 말도 의심해보아야 한다. 2014년 11월 미국 대중음악잡지 '롤링스톤'의 캠퍼스 성폭행(Rape on Campus) 오보 사건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롤링스톤 지는 버지니아대 캠퍼스 내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라고 주장한 제보자의 말을 믿고 보도했으나, 게재 2주 만에 오보임을 시인한 사건이다.

탐사보도에서 의혹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종종 조정신청을 한다. 그들은 보도가 편파적이고 왜곡되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가 된다고 주장한다.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분만과정 중 의료과실에 대한 보도가 조정대상이 되었다. 신생아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위 보도로 인해 해당 산부인과 원장은 숱한 욕설과 비난에 시달렸다고 한다. 의료사고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 법정에서 공방 중이다. 이런 경우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만큼 조정을 통해 정정보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제보자의 시선을 따라가는 보도는 일반 시청자의 관점에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확신을 주기 십상이다.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다. 이에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정 대상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4.02.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면 사람들의 시선은 그곳에 집중된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곳을 비춘다면 대형 사고다. 탐사보도는 시의성보다 정확성에 방점이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해야 한다. 특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소송이 끝난 후에 보도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언론이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의 강렬함과 함께 송곳 같은 정치함을 기대한다.

양재규 변호사 / 교육콘텐츠팀장

'카스'의 추억과 인격권

한동안 열심히 했던 '카스(카카오스토리의 줄임말)'를 오랜만에 열어봤다. 게시물의 상당수가 아이들 사진이다. 살 빠지기 전 통통했던 큰 아이 모습, 채 아기 티를 벗지 못한 둘째와 셋째. 게다가, 아이들 사진마다 자식 키우는 다른 부모들의 열렬한 댓글이 이어진다. 사진에 달린 댓글까지 읽노라니 입가에 절로 웃음이 번진다. 이런 게 자식 키우는 부모의 소소한 행복이고 보람 아니겠나.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페이스북을 하는 엄마들의 97%가 자신의 계정에 자녀의 사진을 올렸다고 한다. 우리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의 사진을 자랑삼아 카톡 대문에 걸고 SNS에 올리며 오늘도 우리 부모들은 자식 자랑하느라 바쁘다.

이런 글로벌한 부모들의 행태에 관해 최근들어 이런저런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려의 핵심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지난 3월 6일자 뉴시스 〈프랑스 부모, 자녀 사진 동의 없이 SNS 게재 시 징역형 가능〉 제하의 기사는 우리 시대 부모들을 향한 거의 최고 수위의 경고가 아닐까 싶다.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자녀의 동의 없이 SNS에 사진을 올린 부모를 형사처벌할 수 있으며 자녀들이 부모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 사진 한 장 올렸다고 벌금이라니 이게 대체 말이 되나.

프랑스는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는 어떨까? 인격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법제 역시 SNS 사진 공유에 썩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장, 초상권 내지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의 본질은 자신의 인격적 사항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다. 본인의 동의가 빠진 초상이나 사생활의 촬영 및 공개라면 설령 그 주체가 부모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법할 수 있다.

물론, 미성년 자녀들에게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 관리는 물론이고 법률행위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자녀의 인격적 사항에 대한 동의 역시 부모가 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제3자일 때 이야기다. 부모 자신이 당사자가 되면 일종의 이해상반관계가 되어 부모의 법정대리권 역시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민법 제921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형사처벌도 문제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및 제71조에 따르면,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것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언에 집착한 다소 지나친 적용이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개인정보보호법 내에 부모를 배려한 예외규정이나 특별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애들아, 아빠가 너희 사진 찍어서 아빠 친구들 볼 수 있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내 눈에 아직 너무 작고 어린아이들이지만 자신의 사진 공유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피력한다. 사춘기를 맞은 큰 아이는 분명한 거부의 의사를, 막내는 동의를, 둘째는 묵묵부답이다. 사실 아이의 의견을 묻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냥 귀찮을 뿐이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한 것이다. 부모로서 이 정도도 못하나 하는 생각,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아이의 사진 한 장 올리는 것인데 말이다.

부모가 아이의 의견을 묻는 것은 그가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이다. 이런 부모에게서 아이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까지도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싶다.

이해준 헤럴드경제 선임기자

새로운 가치를 찾는 즐거움

이탈리아 중부 소도시 여행

오르비에또 절벽과 마을. 성벽 위쪽에 구시가지가 있고, 아래쪽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절벽 안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다.

이해준 기자는 〈헤럴드경제〉 문화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한국을 출발해 2012년 7월까지 가족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남미~북미로 '희망찾기 세계일주'를 펼쳤다. 현재는 〈헤럴드경제〉 정치부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다.

희망을 찾아 나선 가족의 세계여행

꽃샘추위가 아무리 맹위를 떨친다 해도 봄은 온다. 생명을 다한 것처럼 겨우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찬바람과 눈보라를 맞던 나무도 봄이 오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다.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원리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꽉 막힌 것처럼 보여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으면 새날은 찾아온다.

우리 가족이 세계 일주 여행에 나섰던 것은 바로 그 희망을 찾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다. 필자와 아내는 물론 당시 고교 2학년과 대학 2학년이던 두 아들 모두 자기 자신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기 위해 직장과 학교를 중단하고 여행에 나선 것이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일상에 치여 멀어져만 가던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도 주요한 목적이었다. 대학 졸업 후 20년 이상 앞만 보고 달려왔던 필자와 아내는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싶었고, 두 아들에게는 뚜렷하지 않은 꿈과 희망을 구체화하는 것이 여행의 목표였다.

하지만 과연 어디에서 그 희망을 찾을 것인가. 터키와 그리스의 고색창연한 역사·문화 유적을 돌아보면서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 희망을 품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위기에 놓인 삶에 햇살을 줄 구체적인 희망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그러다 이탈리아 중부에서 의외의 선물을 받았다. 우리 가족은 그리스를 떠나 야간 페리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넘어갔다. 고대 로마를 건설한 전설적인 로물루스 형제의 조상 아이네아스가 3,000여 년 전 건넜던 그 항로라는 상상을 하면서 우리도 바다를 건넜다. 이탈리아에서는 남부의 나폴리와 폼페이에서 시작해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까지 주요 유적지들을 바쁘게 돌아다녔다. 그러다 만난 것이 중부의 소도시 오르비에또와 아시시였다. 한국인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름답고 한적한 소도시를 여행하면서 우리가 원하던 구체적인 희망의 끈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슬로 운동의 본거지 오르비에또

오르비에또는 로마에서 북쪽으로 120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다. 도시라기보다는 '타운(town)'이라고 하는 게 잘 어울리는 곳이다. 1999년 '슬로 푸드(Slow Food)' 운동을 도시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슬로 시티(Slow City)' 운동이 이곳에서 시작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중세시대 모습을 잘 간직한 곳으로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새로 뜨고 있는 곳이다. 대부분의 여행자가 로마에서 기차나 버스를 타고 당일치기로 이곳을 여행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1박을 하면서 천천히 돌아보는 '슬로 여행'을 만끽했다.

하지만 아침 일찍 로마에서 기차를 타고 오르비에또 역에 도착했을 때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르비에또 역은 시골의 작은 역 같았고, 거대한 바위 절벽만이 우리를 맞았다. 아무리 둘러봐도 시가

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절벽 아래와 위를 연결하는 푸니꼴라레(Punicolare)를 발견할 수 있었다. 깎아지른 절벽 안쪽에 동굴처럼 비스듬히 터널을 뚫어 만든 철도로 밖에선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흥미로웠다. 푸니꼴라레를 타고 올라가자 셔틀버스가 기다리고 있다가 승객들을 타운의 중앙 두오모 광장까지 데려다주었다. 타운으로 올라가자 오르비에또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절벽 위의 타운은 중앙의 두오모 성당과 골목, 건물 등이 중세시대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로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오르비에또 전체 인구는 2만 명을 넘지만, 절벽 위 타운엔 7,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절벽 아래의 드넓은 평원과 구릉에 흩어져 살고 있다.

골목으로 들어가자 작은 상점들이 아기자기하게 들어차 있었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수공업 제품과 기념품, 의류 등을 파는 상점, 작은 서점도 있었다. 전통을 간직한 작은 상점들이 빼곡하고 공동체가 살아있지만,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피자헛 같은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은 없다. 또 이곳에는 셔틀버스와 극히 일부 공용을 제외하고 자동차가 없다. 승용차는 모두 절벽 아래 주차장에 세워놓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올라오게 되어 있다. 우리는 내친김에 국제슬로시티연합(Chitaslow International)까지 방문해 슬로시티 운동에 관해 물어보기도 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기자 본능을 발휘해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심정으로 방문했는데, 사무국 직원이 반가워하며 자세히 안내해주고 자료도 듬뿍 주어 이 운동을 제대로 알 수 있었다.

슬로시티 운동은 현대사회의 삭막한 음식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패스트푸드에 대항하는 단순한 먹거리 운동이 아니었다. 패스트푸드로 상징되는 자본주의 문화와, '삶의 질'을 위기에 빠뜨리는 성장만능주의, 속도와 편리성만을 좇는 현대의 생활방식을 바꾸기 위한 총체적인 변혁운동이었다. 이 작은 마을에서 구체적인 대안 실천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국제슬로시티운동 선언문의 다음 문구는 뇌리에 오래도록 남았다.

"오로지 깨어있고 공부하는 시민들과 공동체만이 '슬로'를 채택하고 높은 삶의 질을 선택할 것이며, 그것이 위기의 지구에 희망을 줄 수 있다."

'풍요의 시대'에 되살아난 프란체스코의 가르침

아시시는 로마와 피렌체 중간에 있는 작은 마을로, 기독교의 성인 프란체스코가 태어나 성직자로 활동한 곳이다. 이곳 역시 중세의 골목과 집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2000년대 이후 이색적인 것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던 곳이다. 2013년에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란치스코 추기경이 제266대 교황에 선출되면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아시시 역에서 구시가지의 아시시 성당까지는 약 3km 거리로 보통 버스로 이동하지만, 우리 가족은 막 피어나는 봄기운을 느끼기 위해 천천히 걸었다. 따뜻한 봄 햇살을 받아 막 싹을 틔우는 나무와 들판, 밀밭 사이에서 농부들은 밭을 고르고, 집을 손질하고, 밭 주변 나뭇가지를 치느라 분주했다. 아시시 역시 반나절 정도면 돌아볼 수 있는 작은 곳이지만, 어느 곳보다 울림이 큰 곳이었다. 프란체스코는 중세 기독교의 전성기인 12세기 말에 태어나 허영에 휩싸인 기독교를 비판하며, 청빈과 검약, 절제의 덕목 아래 직접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는 '소박한 삶'을 실천했다. 특히 십자군 전쟁의 광풍이 몰아칠 때 '모든 사람이 형제'라며 이슬람교도들에 대해서도 "정복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롭게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직접 사라센으로 가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다. 지금으로 보면 그저 혁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로선 '이교도'로 매도당할 수 있는 혁명적 사상이었다. 성당에는 그의 묘지와 함께 유품도 보존되어 있다. 화려한 중세 성직자들의 의상과 대조적인 누덕누덕 기운 옷은, 그의 검소한 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프란체스코 성인은 풍요와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덕목을 가르치고 있었다. 특히 그가 가르친 것은 작지만 위대한 힘을 가진 '실천'의 중요성이었다. 그가 권력과 재산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고, 낡은 옷을 기워 입고, 곡괭이를 들고 밭을 직접 일구며 복음을 전파했기에 나중에 성인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원대한 이상과 목표가 있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 아니겠는가. 작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 자신과 사회를 구할 수 있다.

별생각 없이 아시시나 오르비에또를 방문했다면 그저 아름답고 낭만적인 중세 마을 정도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작은 마을들이 어느 거창한 유적보다 강한 인상을 남겼다. 두 곳 모두 작지만, 가치 있는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가족이 관광지 중심의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희망을 찾는 여행에 다가갔다는 점에서 더욱 큰 보람을 남긴 여정이었다.

아시시 성당과 순례자 조각상. 이곳을 지나던 순례자가 프란체스코 성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듯하다.

COMMISSIONERS 위원동정

• 신임 중재위원 위촉

3월 15일자로 신임 중재부장 13명이 위촉되었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중재부	성명	현직	임기
서울제1중재부	이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3.15.~2018.8.31.
서울제2중재부	오성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3.15.~2018.8.31.
서울제5중재부	오선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3.15.~2017.10.12.
서울제6중재부	고연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3.15.~2017.10.12.
서울제8중재부	권혁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3.15.~2017.3.30.
부산중재부	박종훈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6.3.15.~2018.8.31.
광주중재부	최수환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6.3.15.~2018.8.31.
대전중재부	방승만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3.15.~2018.8.31.
강원중재부	김동국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6.3.15.~2018.8.31.
충북중재부	양태경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6.3.15.~2018.8.31.
전북중재부	박강회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6.3.15.~2017.3.30.
경남중재부	정재규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6.3.15.~2018.8.31.
제주중재부	변민선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3.15.~2017.3.30.

• 한겨레 〈서울&〉 정기 기고

손관승 위원(서울제6중재부)이 2016년 3월부터 〈한겨레〉 지역밀착형 섹션신문 '서울&' 에 기고를 이어가고 있다. 손관승 위원이 기고하는 '내 삶의 주인되기' 코너는 독자들의 고민에 진솔한 답변을 해주는 독자참여형 콘텐츠이다.

•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 임명

한기봉 위원(경기중재부)이 2016년 3월 2일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에 임명됐다. 한기봉 위원은 인터넷한국일보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 학기에는 〈글쓰기 연습〉을 강의한다.

• 〈미디어칼럼의 이해〉 발간

김선남 위원(전북중재부, 원광대 행정언론학부 교수)이 〈미디어칼럼의 이해〉를 발간했다. 이 책은 예비 칼럼니스트를 위한 글쓰기 훈련 방법과 윤리의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NEWS 위원회 소식

2016년도 정기총회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3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이날 정기총회에서 운영위원(9명)과 시정권고위원(7명)이 선출되었고, 임기는 2016년 3월 31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이다.

박용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인터넷 언론환경에 부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언론보도의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

▲ 박용상(언론중재위원장) ▲ 조동수(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 이수영(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김성수(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오창호(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송종문(전 중앙일보 이사) ▲ 홍문기(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 정정목(청주대 행정도시계획학부 교수) ▲ 민말순(창원YMCA 이사장)

시정권고위원

▲ 박용상(언론중재위원장) ▲ 김재봉(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 유세경(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 이태수(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양승목(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박종렬(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 이혁주(전 조선일보 이사)

계간 「언론중재」 2016년 봄호 발간

위원회 계간지 「언론중재」 봄호(통권 138호)가 3월 30일 발간됐다. 〈Focus on Media〉 섹션에는 '디지털 퍼스트 시대 뉴스의 중심, 이용자'라는 대주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양정애 연구원의 「뉴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변화, 언론의 법적 개념도 바꿀까?」, 박아란 언론학 박사의 「알고리즘 편집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 김균수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이용자는 저널리스트? MCN의 급부상과 미디어 리터러시」 제하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코너에는 「거대 글로벌 뉴스 플랫폼의 쇄도와 법적 문제」를 주제로 한 전응준 변호사의 글이, 판례토크 코너에는 「생방송 인터뷰 보도의 객관성 판단 기준은?」을 주제로 한 노만경 변호사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용, 유감 포함한 알림보도로 결정

01

A 인터넷신문은 사측과 밀실 협상을 벌인 모 회사 노조위원장의 법적 책임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면서 보도와 관계가 없는 신청인 노동조합위원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신청인 노동조합과 노조위원장은 노조위원장의 업무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에서 전혀 무관한 신청인 노조위원장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정심리결과, 중재부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내용을 보도할 경우 더욱 신중하게 사진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도내용과 무관한 신청인 노조위원장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한 데 따른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신청인 A 인터넷신문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할 의도가 없었고, 신청인의 항의를 받은 즉시 홈페이지 및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사진을 일괄 삭제한 사실 등을 고려, 신청인에 대한 유감 의사를 포함하여 해당 사진이 보도내용과 무관함을 알리는 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여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법원 판결문의 부정확한 인용보도, 기사수정 및 댓글삭제로 조정성립

02

B 언론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신청인이 3세 아이를 의자에 앉히다가 팔꿈치를 탈골 시켰으나 대법원은 신청인이 보육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 판결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아이 팔꿈치를 탈골시켰다는 것을 전제로 보도가 이뤄졌으나 당시에는 아이가 팔꿈치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고, 대법원 판결문에도 신청인 때문에 아이의 팔꿈치 탈골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은 아이 팔꿈치 탈골은 본인과 무관함에도 해당 보도로 인해 학부모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었고, 일부 네티즌들은 기사 하단에 심각한 악성 댓글을 게재하여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B 언론사는 신청인이 '무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보도하였으나 일부 부정확한 표현으로 신청인이 오해받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B 언론사는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신청인과 아이의 팔꿈치 탈골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신청인이 문제 제기한 내용의 수정 및 신청인에 대한 비난 댓글 일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 의사를 표명, 조정이 성립됐다.

공개된 행사에서의 초상 보도, 유감 표명 및 유튜브 영상 수정으로 조정성립

03

C 방송사는 영어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울분을 토하는 신청인의 얼굴과 실명, 근무하는 중학교명 등을 동의 없이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계약직이라는 신분이 노출되었고, 초상권이 침해되어 앞으로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포털 및 SNS 등에도 해당 동영상이 퍼지고 있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 방송사는 공개적인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신청인을 촬영했고,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보도했기 때문에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정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얼굴이 비교적 오랫동안 클로즈업 되어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 촬영이었고, 방송내용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수정할 것에 관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공감블로그 속 『언론과사람』 3월호 100자평

machury21 님

『언론과사람』을 읽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아~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턱 높은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중재위원회를 접하고 알 수 있게 관공서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등 공공장소에도 『언론과사람』이 비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영 님

〈품격 있는 죽음〉을 읽고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참하지 않게, 당당하게, 품격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오늘,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곁에 계신 부모님을 더 많이 아껴드리고 보살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윤정 님

〈여행수첩〉을 읽고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공부와 친구 문제로 힘들어하는 중3 아들의 SNS에서 본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이 내내 제 마음을 저미고 있었거든요. 그리스인들의 낙천성을 본받아 주말에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하며 움트는 봄의 기운을 느껴보고 싶네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공감블로그(http://pacblog.kr) 『언론과사람』 4월호 발간 이벤트 페이지에서 소감이나 의견을 4월 20일(수)까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되는 100자평을 남겨주신 분 중 3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기프티콘(2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5월 13일까지 운영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 신문, 잡지, 뉴스통신의 **불공정선거기사**에 대해 자체심의를 합니다.
- 후보자(출마 예정자)는 **불공정선거기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체심의 및 시정요구의 조치내용 :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주의 사실의 게재 또는 경고, 주의, 권고 결정
- 후보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사건**을 처리합니다.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 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48시간** 이내에 반론보도 게재여부를 결정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TEL 02.397.3151~5 FAX 02.397.3089 이메일 pac3061@pac.or.kr www.pac.or.kr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